

고등학생의 쓰기 인식 및 소논문쓰기 지도방안

박혜경¹⁾

〈목차〉

1. 들어가며
2. 이론적 배경
3. 인식 조사 및 결과
4. 소논문쓰기 지도방안
5. 나오며

1. 들어가며

정보화시대에서 글쓰기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수많은 쓰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휴대전화 문자와 페이스 북, 카카오토티 등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생활 속에서 쓰기 문화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토론 및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방식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은 교육과정 내외에서 글쓰기를 요구받고 있다.

1) 전남교육청 전남교육연구정보원, acacia333@naver.com

이처럼 고등학생에게 일상생활과 학업의 측면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별 논술고사는 고등학생들의 대입진학에 있어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기도 하고 소논문보고서로 수행 평가 점수를 받기도 한다. 학교 현장에서도 자기주도 학습과 토론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정확한 언어와 글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요즘 초·중학생들의 책 쓰기나 고등학생들의 소논문 쓰기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직접 책을 집필하거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소논문을 쓰고 학회지에 게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글쓰기는 단순히 쓰기 능력을 키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쓰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더 많은 탐구를 할 수 있고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수도 있다(정은숙, 1990:191).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도 고등학생들의 소논문쓰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학술동아리를 구성하여 장려하거나 소논문 발표대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소병문 외, 2014:22).

소논문 쓰기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글쓰기를 통해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등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등학생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글쓰기 상황이나 기회는 예전보다 양적으로 많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올바른 문장이 무엇이고, 오류가 없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가르쳐 주지 않고 단순히 양적으로 글만 많이 쓰게 하다 보니 글쓰기의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완성한 글에 논평만 해주는 결과 위주의 글쓰기 수업, 대학입시와 관련된 맞춤식 글쓰기 수업은 쓰기 오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글쓰기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각 교과서의 단원을 마친 후에 해당 단원의 내용과 연계하여 쓰기

활동을 해보는 식으로 간접적이고 지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경원, 2013:2-3).

이렇다보니 고등학생들은 글쓰기를 어려워하게 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모든 학생들이 작가가 되는 것을 희망하지는 않는다. 글쓰기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소논문이라는 결과보다는 글을 쓰는 과정, 자료를 찾고 토론하는 경험,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박혜경, 2014:100-103).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쓰기 능력 및 효능감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논문쓰기 활동을 지도하였으며 이러한 지도활동과정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쓰기 능력 및 효능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쓰기와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고 전남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논문쓰기 지도활동 전후로 쓰기 능력, 자신감 등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쓰기 능력 및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논문쓰기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쓰기 능력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간을 키우기 위해 미래핵심역량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인성 역량교육을 진흥하려는 목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미래핵심역량은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의 효율·합리적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라고 흔히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핵심가치, 또는 하위요소들이 범주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에 대한 역

량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쓰기는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사고력 개발의 주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요구한다. 또한 쓰기는 학습을 촉진하고 정교화 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개념을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Flower(1998)는 쓰기를 목표 지향적이고 지적인 수행이며 전략적인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이소영·신태섭, 2012:461에서 재인용). 학교에서도 쓰기 교육은 매우 중요한 학습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식 위주의 쓰기를 가르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김정선·손승현, 2008:106)

학생들은 교육과정 내외에서 쓰기를 학습하거나 학습을 위해 쓰기를 하기도 한다. 즉, 학생들은 쓰기를 적극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거나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해 쓰기를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쓰기는 학습의 한 방법이자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쓰기는 단순히 국어 과목의 한 영역으로만 볼 게 아니라 범교과의 모든 학습활동에 필수적이고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쓰기수행을 어려워하고, 자신의 학년수준에 적합한 쓰기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김미경 외, 2010). 이와 같이 쓰기 능력을 숙달하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신현숙(2008)은 쓰기가 필자와 독자 사이에 직접적이고 공유된 맥락이 부족한 상황에서 폐쇄된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신승은(2010)은 학생의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쓰기 동기와 성차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쓰기 동기가 높은 학생과 쓰기 동기가 낮은 학생들의 쓰기 수행은 질과 양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도 쓰기 동기와 관련된 교육적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남녀학생의 쓰기 수행 차이는 질과 양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쓰기 교육을 진행할 때는 이러한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소영·신태섭(2012)에 의하면 쓰기능력은 쓰기에 대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쓰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인지, 사회, 정의적 측면을 내포한다고 하였다. 또한 쓰기 과정에서는 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정서적 변인들의 상호관련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2.2. 쓰기 효능감

일반적으로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나 어떤 행동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의미한다. Bandura는 인간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기술을 적용하고 통합하는 생산적인 구조로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인간이 기울이는 노력들이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시간의 정도를 결정하는 자기 신념의 체계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목표의 설정, 결과 기대, 정서적 기질에도 영향을 미쳐 인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최건아, 2011:569). 따라서 교육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은 학생들의 인지, 정서, 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보장하거나 예측해 주는 강력한 표지로 인식되고 있으며(조성만, 2012:129) 매우 중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쓰기 효능감은 이러한 자기 효능감을 쓰기에 적용한 것으로 자기 효능감의 일반적 성격과 특징을 공유한다. 또한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 중에서도 쓰기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일찍이 관심을 끌어들였다(박영민·김승희, 2007:328).

쓰기 효능감은 쓰기 기술에 대한 필자 자신의 평가 또는 다양한 유형의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및 작문 기술을 구사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

단이며 쓰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한다. 실제 쓰기 수행 수준과는 별개로 필자 스스로가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를 쓰기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쓰기 효능감은 쓰기 수행에 임하는 필자로 하여금 자신의 쓰기 능력에 대해 긍정적 신념을 갖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쓰기 결과를 이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박민영·최숙기, 2009:97).

그리고 쓰기 효능감은 쓰기 결과에 대한 필자의 기대심리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할 수 있다. 필자의 쓰기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쓰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자극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쓰기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는 필자의 쓰기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최건아, 2011:570).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쓰기 효능감 및 쓰기 결과 기대를 측정하여 글 점수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최건아(2011)의 연구에 의하면, 쓰기 효능감이 글 점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점은 선행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지만 쓰기 결과 기대가 글 점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효능감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쓰기 교육, 특히 효능감과 관련된 정의적 측면의 교육을 더욱 복돋을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쓰기 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쓰기와 관련된 지식과 기능의 영역이 중심이었다. 오택환(2009)은 고등학생들의 쓰기 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동기, 흥미, 습관, 신념, 가치 등을 정의적 영역으로 보아 기능, 전략 등의 인지적 영역과 구별하였다. 가은아(2010)의 연구에서도 태도를 정의적 영역으로, 효능감을 인지적 영역으로 구별하였으며 검사 도구에서도 태도와 효능감 문항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박영민·최숙기(2009)는 쓰기 효능감이 표현기능, 문법 기능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숙기(2009)는 Bandura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 효능감은 인지, 동기, 정서, 과제 선택의 네 가지 과정을 거쳐 영향력을 미친다며 효능감의

범주를 폭넓게 범주화시키고 있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믿음 혹은 수행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이므로, 쓰기 효능감이 기능에 국한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2.3. 소논문 쓰기

2.2.1. 개념

일반적으로 논문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작자의 의견·사상·주장 등을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논문은 주장이 독창적이어야 하고, 진술은 명쾌해야 하며, 논증은 타당해야 하고, 구성은 통일되어야 한다. 이를 논문의 4대원칙이라 한다. 논문의 종류에는 학술논문과 비평논문이 있으며, 전자는 학문상의 연구결과를 논술하는 글로 주로 사실의 진위를 이론적으로 논증하는 글이며 졸업논문, 학위논문, 연구논문 등이 있다(최윤정, 2012:406). 후자는 사회전반의 각 분야에 걸친 시사문제에 대해 비평하는 글로 주로 가치의 유무를 따져서 자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문장이다. 여기에는 문예시평·사회시평·정치시평·경제시평 등을 비롯하여 신문사의 사설과 칼럼 등이 해당한다(네이버 지식사전인용).

논문의 기본형식은 그 내용에 따라 구성형식이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단 구성이 가장 많이 쓰인다. 어떤 문제를 어떠한 목적과 이유에서 다루는 것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술할 것인지를 밝히는 도입부인 서론과 논문의 중심이며 목적을 서술해 나가는 본론과 서론에서 제시한 문제와 본론에서 단정하고 증명한 논지가 모순되지 않도록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제언하는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학자나 전문가들이 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에는 일반인이나 중고등학생들도 논문을 쓰는 추세이다.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논

문을 통상 소논문이라고 부르고 있다. 학술논문은 분량이 많거나 전문적인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고등학생들이 쓰는 논문은 분량이 5페이지에서 25페이지정도로 적다. 내용구성에서 보면 물론 전문적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 진로진학이나 학생 개인의 관심 분야와 연계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학교생활을 통해 관찰하거나 실험, 조사한 내용 등을 진로진학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 학술논문과 구분하여 소논문의 개념을 정리하면 논문의 분량이 적거나 연구주제의 범위가 좁은 경우, 또는 학술논문에 비해 논리성이나 전문성이 엄격히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쓰는 짧은 분량의 보고서,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연구주제가 제한적인 논문을 소논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장은섭(2014)이 초·중·고등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쓰기에 대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매개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쓰기목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부담감 가중으로 부정적 태도가 높았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쓰기 가치 및 효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또한 평소 학생들의 의도적인 글쓰기가 제한적이었고, 쓰기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에 대해 주위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쓰기 수업과 관련된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는 9.6%에 불과하였고, 쓰기 환경을 둘러싼 교육공동체의 노력과 관심은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쓰기에 대한 가치와 긍정적 태도변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의 쓰기 인식에 대한 최수진(2014)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글쓰기를 좋아하고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글쓰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

등사고과정을 통해 수행해야 할 글쓰기 과제가 많이 주어지고, 학습과 평가의 도구로 글쓰기가 자주 활용되면서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글쓰기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성공적인 쓰기 경험을 제공하는 게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처한 현재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쓰기 과제들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려워하는 쓰기 영역에 대해서 별도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2.2.2. 유사 사례

소논문쓰기에 대한 유사한 사례로는 ‘서울 노원청소년 소논문쓰기’와 ‘대구학생저자 10만 양성’이 있다.

전자의 사례는 노원구와 ‘책 읽는 노원만들기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지역내 학교와 연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토론캠프’와 ‘청소년 소논문쓰기대회’,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등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아시아경제 2013.07.10.).

특히,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과 논리적인 표현력을 키워주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 ‘제1회 노원청소년 소논문 쓰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노원구는 제1회 청소년 소논문 쓰기사업을 운영하면서 단순히 논문이라는 결과만을 강조하기보다 꾸준히 학생들에게 소논문 쓰기를 지도하고 관리해 왔으며 중도포기를 방지하고 마지막까지 소논문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소논문쓰기 워크숍에는 ‘청소년과 독서’라는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연구방법론과 소논문 작성방법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또한 논제의 명확성, 연구의 독창성, 소논문 주제의 이해도, 자발적 주도

성 등을 중심으로 최종 심사과정을 거쳐 소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발표대회는 노원구 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별 4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일지와 최종논문에 대한 심사를 거쳐 8개 발표 팀을 선정하였다. 소논문 발표 팀으로 선정된 최종 8개 팀은 학교당 1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여 자신들의 연구내용을 1·2차에 걸쳐 발표하도록 하였다(뉴시스, 2013.08.22.).

2014년 ‘제2회 노원 청소년 소논문 쓰기대회’에는 전년도보다 발표팀이 늘어나 총 29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노원지역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학교별 2~4명 이내의 1팀을 이뤄 교육부문의 18개 팀, 환경부문의 11개 팀이 참가하였다(한강타임즈, 2014.09.11).

노원구는 학생들의 창의적·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인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고등학교의 쓰기 교육 역량을 강화하며 올바른 독서·토론·쓰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논문 쓰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소논문쓰기대회 논문집, 2013:5).

후자의 사례로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저자 10만 양성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책 쓰기 교육에 주력해 오고 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1인 1책 쓰기 운동을 출발점으로 교원 연구회 40개, 책 쓰기 동아리 운영, 공공도서관 및 구청 학부모 책 쓰기, 출판기념회 등 교육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4년 12월에는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14 전국 책 축제’가 대구에서 개최되어 학생저자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책을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책 쓰기 사업은 교육부 평가에서도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지금까지 대구가 배출한 학생저자는 8,000명에 이른다. 책 쓰기 교과서 발간, 학부모와 함께 책 쓰기 가족캠프 운영 등 책 쓰기 교육은 이제 대구시의 대표적인 독서교육 브랜드가 되었다.

대구지역의 책 쓰기 사업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

사들의 열정이 만들어 낸 독서교육의 성공적인 모델로 일컬어진다. 2014년 6월부터 교육부는 책 쓰기 교육을 독서정책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책 쓰기 동아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대구지역의 책 쓰기 사업이 성공을 이룬 요인으로는 첫째,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쓰고 싶어 하는 글의 장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쓰기의 다양한 형식들을 가르치되, 쓰고 싶은 형식을 학생들에게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데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쓰기 활동을 실천할 수 있었다.

둘째, 교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책 쓰기 교육과 연수를 병행하였다는 점이다. 쓰기 교육은 학생만의 노력으로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 대구의 사례는 교사들의 쓰기 교육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책 쓰기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셋째, 책이라는 결과물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쓰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쓰기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학생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성취감을 쓰기에 대한 긍정적인 동력으로 만들었다.

넷째, 학생저자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와 상상력을 책으로 펼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책 쓰기가 진학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책 쓰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꿈을 실현하게 도와주었다는 것이다(유미라, 2014:105).

2.4. 시사점

선행연구와 유사 사례를 중심을 본 연구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소논문쓰기는 학생 개개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흔히, 소논문쓰기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길러 준다고 말한다. 물론 쓰기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이 처음부터 길러진다고 하기 보다 학교나 기관 등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느 단계까지는 이러한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교과와 큰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과학습을 도외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과 연장선에서 소논문쓰기가 이뤄져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소논문쓰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그것이 진로와 연계되어야 한다.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찾을 것이고 상급학년으로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소논문쓰기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장시간에 걸친 자료와 학습의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흥미도가 낮으면 그만큼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다.

3. 인식 조사 및 결과

3.1. 조사 대상

고등학생들의 쓰기 능력 및 효능감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남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전남지역 〈소논문 쓰기 아카데미〉 교육사업에 참여한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실력, 쓰기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소논문쓰기 활동을 지도하고 향후 학생들의 쓰기 실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조사한 후 소논문쓰기 지

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쓰기 능력 및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글쓰기의 인식 정도, 태도, 자신감 등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4년 8월, 전남의 22개 교육지원청 소속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91명을 대상으로 쓰기 능력 및 효능감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소논문쓰기 워크숍, 연구방법 강의, 개별 지도 등 6개월간 동일한 대상자들에게 소논문쓰기 활동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여 소논문쓰기 지도활동이 학생들의 쓰기 능력 및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비교하였다.

조사 내용은 쓰기 효능감과 쓰기 결과 기대 등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민·최숙기(2009)와 최건아(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또는 보완하여 최종 15문항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별이나 지역, 학교 및 교육환경 등에 따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먼저, 고등학생들의 쓰기 능력 및 태도,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글쓰기 활동의 흥미도, 부담감, 자신감, 쓰는 방법, 진학 및 진로 결정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고 5점 척도로 하였다. 이어서 고등학생들의 쓰기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자신감을 0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표기하게 하였으며, 편지쓰기, 설명하기, 매뉴얼 작성하기, 이력서 작성하기, 소논문 쓰기, 신문기사 쓰기 등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효능감 정도를 살폈다. 그리고 맞춤법, 접두사와 접미사 사용, 문장 쓰기, 글의 구조 등에 대한 쓰기 자신감을 10점 사이의 점수로 표시하게 하여 쓰기 자신감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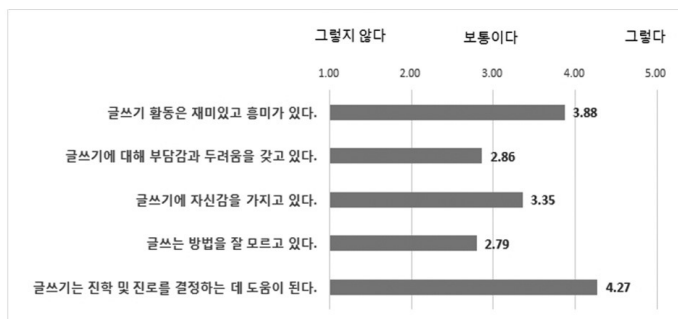
이렇게 취합된 자료는 기술통계 처리를 하였고 결측값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심층면담, 전화상담 등으로 보완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고등학생들의 〈소논문쓰기 아카데미〉를 신청 받은 후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291명의 1학년 학생이 설문에 최종 응답하였다. 이를 토대로 소논문쓰기 아카데미와 워크숍, 연구방법 강의, 동아리활동 안내 등 6개월 간의 소논문쓰기 지도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여명이 소논문쓰기 결과발표대회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소논문쓰기 지도활동 이후 쓰기 능력 및 효능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후 설문조사에 155명의 동일한 대상 1학년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이러한 사전, 사후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소논문쓰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3.3. 조사결과

3.3.1. 사전 조사

〈소논문쓰기 아카데미〉의 진행 방법과 워크숍 등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학생들의 글쓰기 태도와 인식, 자신감 정도, 그리고 쓰기 능력 등을 측정하고자 고등학생 1학년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의 편의상 쓰기 인식과 쓰기 능력 및 효능감으로 항목을 나눠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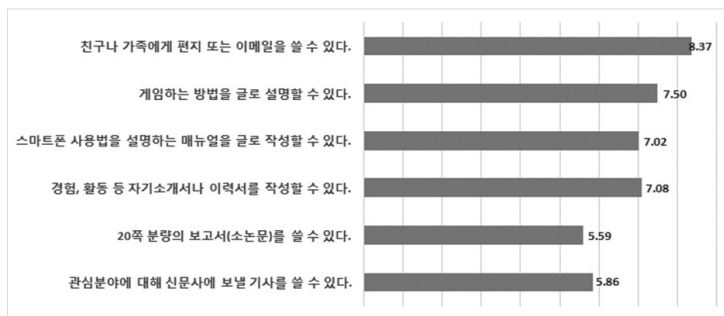


〈그림 1〉 쓰기의 인식 정도(응답평균, 5점 척도)

먼저, 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252명(86.6%)의 학생들은 ‘글쓰기가 진학 및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207명(71.1%)은 ‘글쓰기 활동은 재미있고 흥미가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5명(39.5%)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도 독서와 토론수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다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기소개서 작성, 소논문쓰기 활동, 동아리활동 경험,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 창의체험활동 등 입학전형에서 수험생들의 평가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들이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예비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쓰기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체계적인 글쓰기에 대한 필요성과 흥미를 느끼고 있었으나,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글쓰기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 정도를 총 10점 만점으로 하여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2〉 쓰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 정도 (응답평균, 10점 만점)

그 결과, ‘친구나 가족에게 편지 또는 이메일을 쓸 수 있다’는 8.37점,

‘게임하는 방법을 글로 설명할 수 있다’ 7.50점, ‘경험, 활동 등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다’가 7.08점으로 7점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반면, ‘20쪽 분량의 보고서(소논문)를 쓸 수 있다’는 5.59점, ‘관심분야에 대해 신문사에 보낼 기사를 쓸 수 있다’가 5.8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다.

즉, 일상생활의 편지 쓰거나 이력서 등 자기 경험에 대한 기술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소논문이나 신문기사 등 일상 생활문 보다 좀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글을 쓰는 것은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기기와 SNS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학생들도 문자나 이메일, 페이스북 등 일반 생활문을 쓸 기회가 예전에 비해 더욱 많아져 학생들도 그러한 글쓰기 경험들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신문기사나 보고서 등은 학생 혼자서 실력을 키우기 어렵고 학교나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한 도움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쓰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쓰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쪽의 글을 쓸 때 모든 글자를 맞춤법에 맞게 쓸 수 있다’ 6.50점, ‘문장 내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부분을 정확히 쓸 수 있다’ 6.94점, ‘접두사와 접미사를 정확하게 쓸 수 있다’ 6.32점 등으로 평균 6점대로 나타났다.

3.3.2. 사전 조사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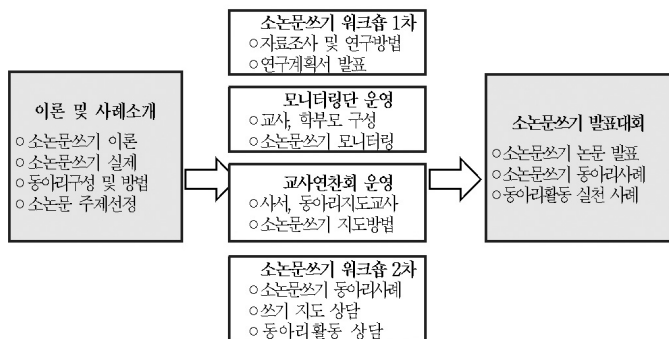
이상의 사전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학생들은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하였으며 쓰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지도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쓰기에 대해 공감하는 반면,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누구나 쓸 수 있는 생활문은 자신감이 높았으나 약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소논문이나 신문기사는 어려워하고 있었다. 셋째, 대학진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대학진학에 소논문쓰기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점을 고려하여 진로와 관련된 소논문쓰기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전문적인 글쓰기는 어려워하므로 논문을 작성하는 기초 연구방법이나 자료조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사전 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고려하여 향후 지도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도방안에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진로와 관련된 소논문쓰기 주제를 설정하게 하고 동아리팀으로 구성하여 서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도교사가 소논문쓰기 지도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이나 과정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3. 소논문쓰기 지도활동

설문조사 학생 299명의 응답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소논문쓰기 아카데미〉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였다. 개최식에서는 소논문쓰기의 이론과 실체에 대한 강의와 소논문쓰기 동아리 구성 및 주제 찾기 등에 대한 분임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소논문쓰기 워크숍을 두 차례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사서교사와 각 학교에서 동아리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연찬회도 운영하였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소논문쓰기 활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림 3〉 소논문쓰기 단계별 지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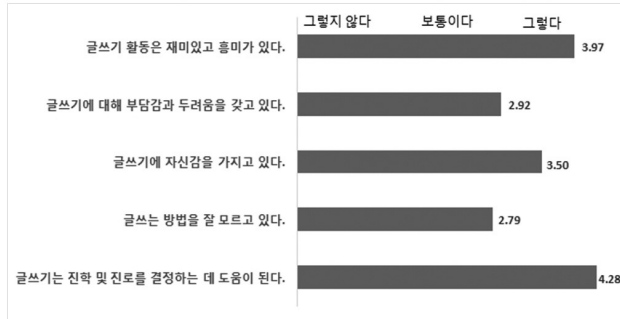
이러한 여러 추수지도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소논문발표대회를 열었다. 발표대회는 그동안 학생들이 소논문쓰기 지도를 통해 완성된 결과물을 발표함과 아울러 소논문동아리활동 운영에서의 어려움이나 느낀 점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표대회를 끝으로 모든 〈소논문쓰기 아카데미〉가 종료되면서 참여자중 155명이 사후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소논문쓰기지도 이후의 변화를 응답하였다.

3.3.4. 사후 인식 조사

약 6개월간 〈소논문쓰기 아카데미〉 지도 활동을 마친 이후 사전조사와 같은 문항으로 쓰기의 인식과 쓰기 능력 및 효능감에 대해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쓰기 활동은 재미있고 흥미가 있다’가 3.88점에서 3.97점으로,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3.35점에서 3.50점으로 글쓰기에 대한 인식은 〈소논문쓰기 아카데미〉 이전에 비해서 약간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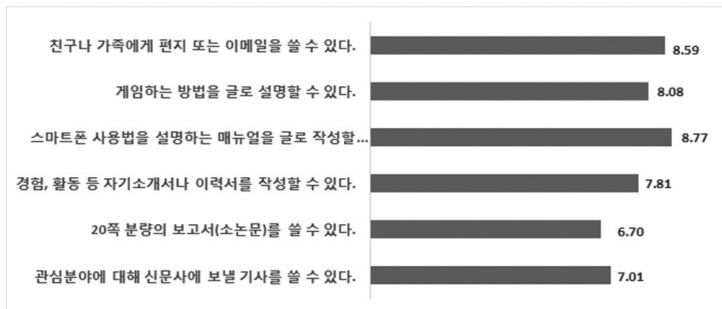
따라서 쓰기에 대한 인식은 6개월의 단기 지도를 통해 어떤 변화를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쓰기 활동과 침식지도 과정은 장

시간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쓰기의 인식 변화 (응답평균,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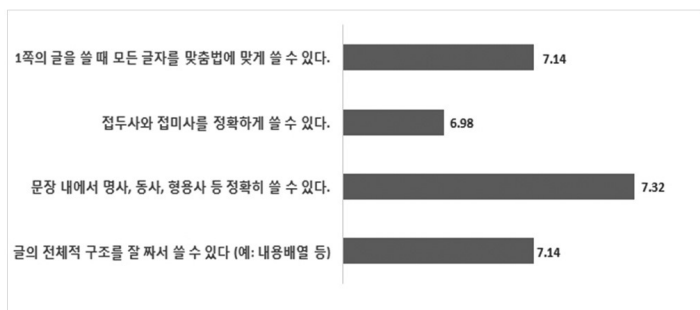
쓰기 능력 및 효능감 즉,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7-8점 이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특히, ‘20쪽 분량의 보고서(소논문)를 쓸 수 있다’는 5.59점에서 6.70점으로 높아졌으며, ‘관심분야에 대해 신문사에 보낼 기사를 쓸 수 있다’가 5.86점에서 7.01점으로 글쓰기 지도를 진행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높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자신감의 상승만으로 글쓰기 효능감이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논문쓰기 지도 결과에 따른 반응으로 향후 장기적인 지도가 이뤄진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쓰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 변화 (응답평균, 10점 만점)

편지를 쓰거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은 사전조사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보고서나 신문기사 등 논문을 쓰는 데는 높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소논문쓰기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소논문을 써보면서 쓰기에 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쓰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1쪽의 글을 쓸 때 모든 글자를 맞춤법에 맞게 쓸 수 있다’ 6.50점에서 7.14점, ‘문장 내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부분을 정확히 쓸 수 있다’ 6.94점에서 7.32점, ‘접두사와 접미사를 정확하게 쓸 수 있다’ 6.32점에서 6.98점, ‘글의 전체적 구조를 잘 짜서 쓸 수 있다’ 가 6.82점에서 7.14점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치이지만 소논문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글쓰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 변화(응답평균, 10점 만점)

한편, 글쓰기 지도가 종료된 이후 글쓰기 과정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는 과정을 통해 경험한 학습태도의 변화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친구들과 토론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는 의견이 4.05점, ‘자료 검색이 증가하였다’ 는 4.16점, ‘교내외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 는 4.1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평소 관심 분야의 소논문을 쓰면서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 는 3.77점, ‘글 쓰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는 3.64

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먼저, 학생들이 글 쓰는 과정을 통해 자료를 찾고 친구들과 토론하는 등 평소보다 다양한 교내외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고등학생들은 특히 대학입시 준비로 장시간의 체계적인 글쓰기 지도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논문쓰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글쓰기 지도는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등학생 1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논문쓰기 아카데미 과정은 전후 학생들의 쓰기 능력과 자신감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었지만 글 쓰는 방법을 찾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그에 맞는 글쓰기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 쓰기를 통해 경험한 학습태도의 변화(응답평균, 5점 척도)

4. 소논문쓰기 지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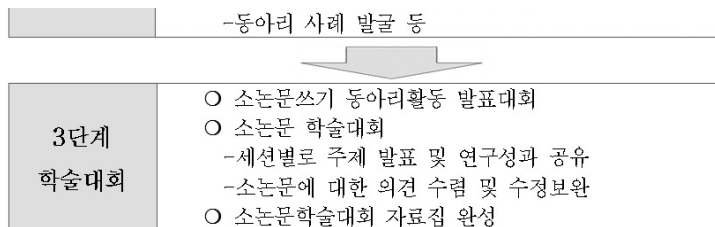
소논문쓰기 지도활동 결과와 사전, 사후 쓰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소논문쓰기 지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진학과 연관된 소논문 주제를 선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대학입학 시기가 되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즉, 소논문을 쓰면서 평소 자신의 관심분야를 찾아보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진로진학과 연계된 소논문쓰기는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끌어내는 데도 유리하다.

둘째, 소논문쓰기 동아리 팀을 구성해야 한다. 동아리 팀을 구성하여 토론하고 함께 자료를 찾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토론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도 경험할 수 있으며 쓰기를 통한 의사소통능력과 배려·협력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셋째, 소논문을 쓰는 단계별 지도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소논문이라는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곤란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쓰는 단계별로 꼼꼼한 지도와 관리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구일지나 동아리활동보고서 등 과정을 기록하게 하여 연구의 단계별 진행정도를 확인하고 추진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단계별 지도 전략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설계	○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진단 ○ 학생들의 관심 분야 및 진로탐색 ○ 글쓰기 진단 및 관심을 고려한 지도 방안 설계
2단계 지도	○ 소논문쓰기 동아리 구성 -동아리 팀원 및 일지 작성 요령 -동아리활동 분야 등 ○ 소논문쓰기 지도 -글 쓰는 방법 및 논문쓰는 요령 -1, 2차 자료조사 및 문헌조사 방법 -조사 결과처리 및 분석 등 ○ 동아리활동 지도 -동아리활동 상담 및 팀장 워크숍



〈그림 8〉 소논문쓰기 단계별 지도 전략

넷째, 소논문 자료집을 발행해야 한다. 물론 학생들이 쓴 소논문은 오류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이 찍힌 책자를 발행한다고 할 때 그만큼 세심한 노력과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논문집이 나오면 스스로 해냈다는 만족감과 자긍심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쓰기 결과에 대한 성취감은 학생들이 쓰기 활동을 긍정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섯째, 소논문을 지도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동아리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글쓰기와 자료조사, 연구방법 등 겹에서 꾸준히 지도하고 도와줄 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나오며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특히 학생들의 글쓰기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학생들의 글쓰기는 단순히 논문이라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친구들과 토론하고 자료를 찾아내며 동아리 팀을 구성하거나 진로와 관련된 탐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은 물론 논리적 사고와 비판능력을 키워주며 토론과 주제 발표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찾도록 도와준다. 또한 고등학생들

에게는 진로진학에 도움이 되며, 관심분야에 대한 쓰기활동을 거치면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고 삶의 방향을 구체화시킬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고등학생들은 일상생활의 쓰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소논문이나 신문기사 등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분야의 쓰기는 어려워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과 논리적 사고능력, 비판능력을 키워주고자 〈소논문쓰기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의 고등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소논문쓰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진로진학과 연관된 소논문쓰기 주제를 선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소논문쓰기 동아리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소논문을 쓰는 단계 별로 지도가 필요하다. 넷째, 소논문 자료집을 발행하도록 한다. 다섯째, 소논문을 지도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창의력과 논리력, 비판력은 사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학교현장에서도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움직이는 교실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와 표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일례가 학생들의 글쓰기 활동일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소논문쓰기 지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조사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사전사후 글쓰기 인식 조사 인원이 차이난다는 점, 쓰기 효능감에 대한 문항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향후 이러한 점이 보강되어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중학생들의 쓰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은아(2010), 쓰기 태도 및 쓰기 효능감 발달 연구: 6학년에서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37집, 국어교육학회, 159-183.
- 김정선·손승현 (2008), SCAMPER 기법을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지도 효과,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 제38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05-134.
- 박영민·김승희(2007), 쓰기 효능감 및 성별 차이가 중학생의 쓰기 수행에 미치는 효과, 『국어교육학연구』 제28집, 국어교육학회, 95-125.
- 박영민·최숙기(2009), 우리나라 학생들의 쓰기 효능감 발달 연구, 『새국어교육』 제82호, 한국국어교육학회, 95-125.
- 박혜경(2014), 펜이 가진 마법, 소논문쓰기, 『전남교육 이슈&정책』 제14권, 100-103.
- 노원구청(2013), 소논문쓰기대회 논문집.
- 소병문 외(2014), 「고등학생 소논문쓰기 어떻게 시작할까?」, 서울:씨앤투.
- 서경원(2013), 고등학생의 글쓰기 오류 양상 연구 -논술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승은(2010), 고등학생의 쓰기 동기 수준 및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2008), 분석적 평가에 의한 논증글 쓰기 수행의 발달적 차이,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 제46권 1호, 한국교육학회, 1-29.
- 오택환(2009), 고등학생 필자의 쓰기 태도 발달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45집, 국어교육학회, 125-148.
- _____(2007), 고등학교 작문 교육의 현황과 전망, 『작문연구』 제4집, 한국작문학회, 57-83.
- 유미라(2014), 왜 책 쓰기 교육인가?, 『전남교육 이슈&정책』 제14권, 104-107.
- 이소영·신태섭(2012), 중학생의 쓰기성취목표지향성, 쓰기 효능감 및 쓰기능력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26권 2호, 한국교육심리학회, 461-478.
- 장은섭(2014), 초·중·고등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새국어교육』 제9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73-208.
- 정미경(2011), 고등학생의 쓰기 전략 인식에 관한 연구, 『우리말글』 제53집, 우리

- 말글학회, 175-201.
- 정은숙(1990), 글쓰기 지도에 대하여-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배달말교육』 제8권, 배달말교육학회, 187-202.
- 조성만(2012), 국어교사의 쓰기 지도 효능감과 쓰기 지도 빈도의 관계 연구, 『작문연구』 제15집, 127-158.
- 최건아(2011), 고등학생의 쓰기 효능감 및 쓰기 결과 기대, 글 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제40집, 국어교육학회, 569-591.
- 최수진(2014), 중·고등학생의 쓰기 인식 및 쓰기 윤리 실태, 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숙기(2009), 중학생의 읽기 효능감 구성 요인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35집, 국어교육학회, 507-544.
- 최윤정(2012), 대학생 소논문 작성 지도 사례 연구, 『어문연구』 제40권 3호, 한국어교육연구회, 405-430.
- 김미경 외(2010), 201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국어. RRE2011-3-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황재웅(2007), 논술 신문 제작을 통한 쓰기 능력 향상방안 연구, 『작문연구』 제5집, 한국작문학회, 169-204.
- 신문기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 펼친다” 2013.07.10. 아시아경제.
- 신문기사, “노원구, 청소년대상 ‘소논문쓰기대회워크숍’ 개최”, 2013.08.22. 뉴스시스
- 신문기사, “노원구, ‘청소년 소논문쓰기대회’ 열려”, 2014.09.11. 한강타임즈

※ 이 논문은 2016년 2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6년 2월 26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 뒤

2016년 3월 12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2016년 3월 2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

◆ 초록 ◆

고등학생의 쓰기 인식 및 글쓰기 지도방안

박혜경(전남교육청)

글쓰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등학생들의 소논문쓰기도 열풍이 일고 있다. 이에 고등학생 소논문쓰기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글쓰기에 대한 인식과 자신감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고등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필요성과 흥미를 느끼고 있었으나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논문쓰기 워크숍, 연구방법 강의, 쓰기 지도 등을 진행하였으며, 글쓰기에 대한 인식과 자신감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소논문쓰기 이후 학생들의 글쓰기 인식과 자신감이 어느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논문쓰기 지도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제어〉 소논문, 글쓰기, 논문지도, 글쓰기 아카데미, 학생글쓰기

◆ Abstract ◆

Essay writing teaching plan and a writing recognition of high school students

Park, Hyekyung(Jeonnam Institute of Educational Policy)

Among the growing importance of writing, Write a essay of high school students are also growing in popularity. For effective guidance of high school student's essay writing, we investigated awareness and confidence in writing.

Survey results, high school students interested and felt the need to write, but appeared to be less confident about writing.

Based on these results, Essay writing workshops, Research methods teaching, Writing guidance, etc. were conducted. And a change in awareness and confidence in writing investigated.

Survey results, since essay writing, writing recognition and confidence of students showed improved somewhat.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possible to derive some implications for the essay writing guidance.

〈Key Words〉 essay, writing, Map write, Write Academy, High school students writing